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조성익 토마스 모어, 조은경 수산나
다음주 독서: 김보미 로사, 전지나 베아트릭체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우상인 사비나
다음주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이번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조은경 수산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44
교무금: \$ 530

합 계: \$ 774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역사를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오늘의 묵상

세상에서 혼자 살기는 춥고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기에는 상대방의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고슴도치를 부둥켜안고 사는 듯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동반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부부 사이부터 가족, 친척, 이웃이 있습니다. 수천 억 명이 살다간 인류 역사 속에 한 시대 한 지점에서 만나 삶을 함께하는 인연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으로 서로 부둥켜안고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데 그 만남들에서 술하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고 덜 받고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에 온갖 자존심과 열등감, 욕심이 채워져 있을수록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 때 내적인 겸손이 생깁니다. 내적인 겸손이 쌓일 때 우리는 상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출발은 하느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깊이 감사하고 나면 모든 이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처 받을 일도 없어집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24 주일]

2011 년 9 월 10 일

<제 1 독서> 집회서, 27,30-28,7

<제 2 독서> 로마서, 14,7-9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깨닫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 넘치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18,21-35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썴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썴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여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472 봉헌: 512 성체: 496 파견: 2



생명의 말씀

용서를 하는 것만큼 용서를 구하는 것도 큰 용기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복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을 타하지 않는 꽃처럼 지구의 자전을 타하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아무리 세상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도 끝내 길을 잃지 않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흔들림조차 딛고 일어난 이 땅의 순교 성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복음속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과한 듯싶지만 되짚어 보면 미움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용서 또한 끝없이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만큼이나 미움은 마음의 빗장을 닫아걸어도 파고드는 바람과 같이 초대하지 않아도 슬며시 자리 잡는 불청객입니다. 초대한 것도 아닌데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도통 나갈 줄 모르기에 용서 또한 그렇게 모질게 마음에 되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움은 초대장 없이 들어오는 불청객이지만 용서는 끊임없이 초대해도 쉬이 자리 잡으려 하지 않는 낯선 손님이라는 점이겠지만 말입니다.

예전에 본당 일에 반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 기분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일은 잘 되었고 많은 이들은 그분의 선택에 보이지 않는 질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문안을 가게 되었을 때, 그분은 신부님께 죄송하다고 참 미안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한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커다란 용기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해 주는 것도 마음을 거슬러 흘러야 하는 것이고 보면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그 이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 쉬이 미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웅졸함에 대해 더 많이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하고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잘못에 돌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감싸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가 행한 만큼 매여 있는 이유이겠지만 하느님의 정의가 참회하는 만큼 매여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세상의 정의를 하느님의 정의보다 앞세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기에 사람이요, 떨리지 않는 나침반은 더 이상 나침반일 수 없는 것처럼 미움과 용서 사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끝내 길을 잃지 않았던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오늘도 일흔일곱 번 흔들려도 일흔일곱 번 딛고 일어서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공지사항

- 밀워키 한인 성당에서 9 월 25 일 10 시 30 분에 밀워키 대교구 주교님을 모시고 축복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당 홈페이지에 밀워키 신부님이 보내오신 초대글 올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임 자매님/한진 형제님 부부가 지난 월요일에 건강한 아들(한 유인)을 낳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 10 월부터 다시 매월 마지막 주 공동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분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 10 월 중에 견진 교리와 예비자 교리를 시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박 상훈 신부님에게 이메일 주세요 (sanghun.pak@gmail.com). 특히 가톨릭을 알고 싶거나 영세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해 최대 명절인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곡백과를 내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 ‘부모님 찾아뵙고 못다 한 효도를 하는 날’,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는 날’과 같은 대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대답이 많합니다. ‘부부 싸움 하는 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립하는 날’, ‘형제들 의리 상하는 날’, ‘돈만 쓰고 피곤하기만 한 날’ 등. 한 해 최대 명절이지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오랜만에 모여 우애와 행복을 나누는 가족도 많지만, 점차 그런 모습은 줄어들고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명절 모습인 듯합니다. 마치 핵분열을 하듯 가족이 해체되고 부모와 형제 관계도 이해관계에 따라 우애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재산도 없는 부모나 형제는 자신에게 피해나 주는 귀찮은 존재로만 여겨집니다. 쥐꼬리만 한 재산상의 이해관계만 걸려 있어도 형제간에 등 돌리고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가족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안에 인정과 우애보다 물질적 가치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 공간에 재물을 더 쌓아 두지 못해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분열과 불화의 탓을 다른 형제에게 돌림으로써 더욱더 나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가족이면서도 형제 사이에 우애가 있고 화목한 가정은 형제 가운데 누군가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가족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에게 왜 희생을 못하느냐고 묻지 말고, 스스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과 아픔을 말없이 참아 내야 합니다.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 두는 재물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만은 풍요로워야 하겠습니다.